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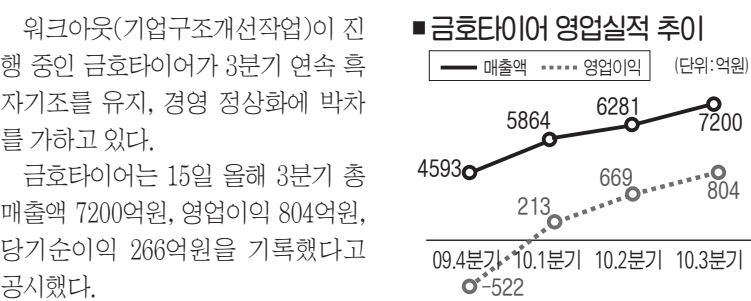
경제

3 가격할인의 함정

금호타이어 '흑자행진'

3분기 매출 7200억 전년비 53% 신장

영업이익도 804억 경영정상화 청신호



금호타이어 영업실적 추이

단위: 억원 (2010년 기준)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두 얼굴의 대형마트

교묘한 눈속임 상술 결국 소비자 부담

주부 이은숙(39·광산구 송정동) 씨는 대형마트에만 가면 예상 비용을 항상 초과해 지불하게 된다.

이씨는 "실제 필요한 것은 1~2 개 정도에 불과한데 묶음 상품이 더 이익이라는 생각에 날개보다는 묶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같은 매장 내에서 묶음 포장과 단품포장 상품을 함께 팔지 않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이 같은 상품의 g당 가격을 직접 비교하며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라면 등 가격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유명 브랜드의 상품들은 단품 판매를 하지 않고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근 슈퍼마켓이나 전통신장에서 날개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묶음 상품이 날개 상품보다 더 비싸게 팔리더라도 소비자들은 쉽게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1+1' 상품도 '50% 할인'이라는

묶음상품도 대응량이 더 비싸

사은품·최저가에 충동구매 일주

할인값은 납품업체·소비자에 떠넘겨

가격, 할인행사 등 교묘한 상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브랜드의 묶음 상품 중에서도 대응량이 소용량 상품보다 g당 가격이 더 비싸게 팔리는가 하면 '1+1' 등 사은품 증정시 기존 상품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생필품가격정보사이트 티프라이스(price.gate.or.kr)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광주지역 롯데마트에서 6개 묶음(1260g)으로 판매되는 A브랜드 즉석밥의 경우 6950원이었지만 '3+1' 묶음(840g) 상품은 3590원에 판매됐다.

느낌을 주지만 실제 날개 상품보다 가격이 더 비싸거나 기존 상품보다 용량을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에 2000원으로 판매했던 음료수를 '1+1' 기획상품으로 내놓으면서 가격을 500원 올려 2500원에 파는 경우다.

또 묶음 상품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이나 용량이 작은 상품들을 묶어서 파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중소상인 단체가 15일 오후 광주시 북구 각동동 홈플러스 동광주점 앞에서 지역 경제 수호를 위해 대형마트·SSM 대기업 진출에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SSM 강제 입점 즉각 중단하라”

'홈플러스 불매운동' 시민행동 경고

지역 중소상인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정치권 등 지역사회가 동원 대형마트·SSM 대기업 진출을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15일 오후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를 비롯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NCC, 민주당 광주시당,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대형마트SSM입점저지 북구 대책위, 홈플러스·우산동대책위는 광주시 북구 각동 홈플러스 동광주점 앞에서 소비주권과 지역 경제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 유통업체는 강제 입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와 SSM 추가

고 있다.

지역 유통업체에서 근무했던 정모(40)씨는 "1+1이든 사은품 증정 등이 얼핏 보기에 소비자들에게는 할인효과가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이나 용량을 줄인 상품을 묶어서 팔거나 사은품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따져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형마트들의 과잉 경쟁으로 인한 가격할인 행사는 가격 질서를 왜곡하고 결국에는 사은행사의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형식 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마트와의 계약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납품업체들이 가격을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결국에는 제조업체들도 '1+1' 등 각종 사은행사 비용을 반영해 납품가격을 책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사은행사 비용까지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시 플라스트릭 태양전지 상용화

세계적 권위자와 협력 첨단기술 개발키로

광주시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스트릭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에 나선 방침이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15일 태양전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열린 허거 박사와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플라스트릭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교류를 협력하기로 했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스트릭 태양전지는 가볍고 유연한데다 개인 휴대용 발전기부터 산업용 전력생산까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대량생산도 가능해 2015년 세계시장 규모가 40조원에 이

를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국회의원 시절 광주 과학원을 방문해 이광희 교수를 만난 강은태 시장은 광주 과학원의 '허거 내수 연구센터' 설립과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자금 100억원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Index and Value. Values include 1,913.81 (+0.69) for 코스피지수, 504.83 (-4.52) for 코스닥지수, and 3.47% (+0.01) for 금리 (국고채 3년).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7개>

Table of auction listings with columns: Case No., Lot No., Description, Area, Usage, Price, and Remarks.

Table of auction listings with columns: Case No., Lot No., Description, Area, Usage, Price, and Remarks.

Table of auction listings with columns: Case No., Lot No., Description, Area, Usage, Price, and Remarks.